



푸른 동시놀이터 1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윤동주 지음 | 신형건 옮김 | 푸른책들 펴냄
130x190 | 값 12,000원 | 3판 1쇄 2016년 5월 30일
ISBN 978-89-5798-521-2 74810 | 112쪽
분야 - 동시 | 대상 독자 - 초등 전학년

주요 내용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로 시작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예요. 그에 못지않게 「별 헤는 밤」, 「자화상」, 「새로운 길」 등의 시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그러기에 윤동주 시인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사랑받는 '민족시인'이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맑고 따뜻한 마음을 담은 시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끝내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스물아홉 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스물아홉 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도 우리 민족혼을 담은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동시들을 한데 모아 펴낸 최초의 동시집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동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윤동주 시인 스스로 동시라고 밝힌 작품이 35편이고, 그 외에 동시로 읽힐 만한 시들을 포함하면 전체 시 중에서 1/3 이상이 어린이를 위한 시예요.

읽기 전에

1.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시인들은 왜 밤을 새워 시를 쓸까요?
2. 외울 수 있는 시가 몇 편이나 되나요?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만 읊어 보세요.
3. 일제 강점기 때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토론해 보세요.
다음은 토론의 예입니다. 나의 생각과 비슷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기훈 : 나라면 시를 쓰는 대신 총을 들겠어. 시를 쓴다고 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구할 수는 없잖아. 나라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가하게 시를 쓴다는 건 나약한 지식인의 자기만족일 뿐이라고 생각해.

수진 : 내 생각은 달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무기를 들고 일제에 저항하는 일 못지않게 나라말로 시를 쓰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시를 통해 민족정신과 민족혼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거잖아.

상민 : 운동주의 많은 시들은 민족정신이나 민족혼을 노래했다기보다 어린이의 심리나 일상을 그려낸 것이 많아. 일제에 대한 비판이나 저항을 촉구하는 시는 거의 없다고.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 사는 지식인으로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닐까?

지현 : 운동주는 한문을 거의 쓰지 않고 한글로만 시를 썼어. 그것 자체가 민족정신을 잃지 않겠다는 저항 정신 아니겠어?

승범 :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웠을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 봐. 게다가 한글을 사용하다가 들리게 되면 고초를 겪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

나래 :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한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좀 씁쓸해. 나라를 잃기 전에는 양반들이 한문을 주로 사용하면서 한글을 언문이라 천대했잖아.

골든벨을 울려라!

★ 1번부터 차례대로 맞춰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맞으면 골든벨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1. 「반딧불」에서 반딧불은 무엇의 조각일까요?
2. 「눈」에서 '지붕이랑/길이랑 발이랑/추워한다고/덮어 주는' 눈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3. 「해바라기 얼굴」에서 해바라기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라고 했나요?
4. 「햇빛.바람」에서 '손가락에 침 발라/쓰옥, 쓱, 쓱/장에 가는 엄마 내다보려/문풍지를/쓰옥, 쓱, 쓱// 아침에 ()이 반짝,//손가락에 침 발라/쓰옥, 쓱, 쓱/장에 가는 엄마 돌아오나/문풍지를/쓰옥, 쓱, 쓱//저녁에 ()이 술술
5. 「참새」에서 '가을 지난 마당'은 참새가 글씨 공부를 하는 '하이얀 ()'이래요.
6. 「봄」에서 '우리 아기는/아래 발치에서 코올코올/()는/부뚜막에서 가릉가릉//아기바람이/나 못가지에 소울소울//아저씨 해님이/하늘 한가운데서 ().'
7. 「밤」에서 '외양간 당나귀/아양 양 외마디 울음 울고,//당나귀 소리에 으-아 아 아기 소스라쳐 깨고,//등잔에 불을 달아요.//아버지는 ()에게/짚을 한 키 주고,//어머니는 ()에게/젖을 한 모금 먹이고,//밤은 다시 고요히 잠들어요.'
8. 「사과」에서 '붉은 사과 한 개를/아버지 어머니/누나, 나, 넷이서/껍질째로 송치까지 다- 나눠 먹었어요.'에서 '송치'의 뜻은 무엇일까요?
9. 「무얼 먹고 사나」에서 '바닷가 사람/() 잡아먹고 살고//산골엿 사람/() 구워 먹고 살고//별나라 사람/무얼 먹고 사나.'
10.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앞새에 있는 ()에도/나는 괴로워했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 가는 것을 ()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이 ()에 스치운다.'

나도 시인

1. 「눈」을 읽고 '비'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눈」과 똑같은 형식의 시를 써 보세요.

예) 지난밤에 / 비가 내렸네

2. 「해바라기 얼굴」을 읽고 '누나' 대신 '아빠'나 '엄마'로 바꿔 시를 써 보세요.

★ 타임머신을 타고 **윤동주**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만나러 가요.

이번 시간 여행은 시를 타고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입니다. 내가 시를 한 편 읊으면 여러분은 낭랑한 내 목소리를 타고 곧바로 어디론가 떠나게 됩니다. '빨랫줄에 걸어 논/요에다 그린 지도/지난 밤에 내 동생/오줌 싸 그린 지도//꿈에 가 본 엄마 계신/별나라 지돈가?/돈 벌러 간 아빠 계신/만주 땅 지돈가?' 「오줌싸개 지도」라는 이 시는 슬며시 웃음이 나올 만큼 정말 장난스럽고 익살맞은 시이지요.

우리가 이 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1926년 북간도 명동촌이라는 곳인데, 지금으로 치면 연변 지방의 아늑한 마을 중 하나이지요. 가랑나무가 우거진 산기슭에 교회당이 있고 그 옆에 기와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 앞마당에 한 소년이 빨랫줄에 걸린 요를 보고 '오줌싸개 지도'라며 동생을 놀려 먹고 있네요. 그 애 이름은 바로 '동주'입니다.

올해 열 살인 동주는 마음이 무척 여리고 순한 아이입니다. 엇그제만 해도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무얼 물어보았는데 대답이 막히자 금방 눈에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때로는 짓궂은 장난꾸러기이기도 합니다. 동생을 오줌싸개라고 놀리는 것뿐 아니라 '손가락에 침 발라 /쏘옥, 쓱, 쓱/장에 가는 엄마 내다보려/문풍지를 쏘옥, 쓱, 쓱' 뿜기도 하고, 종이로 저고리며 총을 만든다고 마구 가위질을 하다가 방바닥을 어지럽힌다고 엄마한테 빗자루로 불기 짝을 얻어맞기도 하지요.

동주는 오늘도 친구와 함께 집 뒤에 있는 과수원 울타리의 뽕나무에서 오디를 실컷 따 먹고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입을 닦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자 동주는 혼자 남아 깊은 우물 속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거울처럼 잔잔한 우물엔 파란 하늘이 잠겨 있고, 서늘한 바람도 한줄기 잠겨 있고, 동주 얼굴도 동그마니 잠겨 있습니다. 저녁 어스름에 동주는 또 우물가로 나와 다시 들여다봅니다. 우물엔 이제 막 새로 돋은 별도 잠겨 반짝입니다. 바로 그때였을까요, 한 모금의 샘물처럼 동주의 가슴 속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고인 것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로부터 15년쯤 흐른 뒤인 1941년 동주는 「서시」라는 시를 쓴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누구나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겠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맑고 깨끗한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저절로 스며들어, 「서시」는 나중에 우리 민족이 가장 애송하는 시가 되었답니다.

신형건(시인)